글_ 김여진 전문위원 + 자료_ 미국 New York Times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표준 제정 박차

서유럽 국가 5대 유기농 자연화장품협회가 협력 추진

유기농 화장품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 화장품 표준(Cosmetic Organic Standard: Cosmos)이 제정 중이다. 현재 표준(안)은 올해 안 제정 완료를 목표로 인증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편집자〉

화장품 업계의 대표주자인 로레알(L'oreal)이 2006년 유기농 화장품업체인 사노플로레(Sanoflore)를 인수했을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유기농 화장품이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986년 Rodolphe Balz는 프랑스 남동부 드롬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유기농 아로마테라피 회사인 사노플로레를 창설했다. 이후 뷰티사업에 뛰어들어 1,500만 유로에서 1,830만 유로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자연을 추구했던 사노플로레의 창립 정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조건이 됐다.

Cosmos를 국제표준으로 하기 위한 국제비영리기구 설립

유기농 화장품 표준(Cosmetic Organic Standard: Cosmos)은 독일, 프랑스, 이

▲ 유기농 화장품 표준 제정은 2002년 이래로 유기농 자연화장품에 대해 세계 공용라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특히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요구의 반영이다.

태리, 영국 등 5대 유기농 자연화장품협회가 협력한 결실이다. 2002년 이래로 유기농 자연화장품에 대해 세계 공용라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다.

지난달 브뤼셀에서 Cosmos를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비영리기구가 설립돼 이 분야에서 큰 진척이 있었다. 5대 창립기관들은 2014년까지 유기농 화장품 라벨링을 위해 각국 표준의 국제적 차원의 조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설립된 기구의 신임 사무총장인 Bett Santonaat는 인증기관들은 Cosmos 표준을 사용해 제품을 인증할 권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시아, 북미, 호주 등의 인증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유럽의 주도로 시작됐지만, 표준과 새로 설립된 기구의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유기농 자연화장품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현재 표준(안)이 인증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며, 올해 안 제정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단일표준 제정에 관해 좀 더 여지를 남겼다.

Organic Monitor의 CEO인 Amarjit Sahota는 "당분간 국가 라벨링이 지속될 것이며, 대다수의 화장품 업체들은 Cosmos 표준 라벨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표준이 도입되고 인증이 시작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09년 서유럽에서 유기농 화장품 13% 성장

2007년 Cosmos 표준협상의 느린 진행에 실망한 독일과 스위스 화장품기업들은 NaTrue 상표를 설립함으로써 Cosmos와 경쟁을 하게 됐다. Weleda 및 Dr. Hauschka와 같은 유럽의 대표적 브랜드들도 NaTrue회원으로 포함됐으며, 150개 이상의 제품에서 NaTrue표준이 라벨링으로 채택됐다. 최근 미국의 Burt's Bee가 합류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Cosmos의 사무총장은 NaTrue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Cosmos가 기술기준의 조화, 합의를 위한 절차 등에서 아예 NaTrue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화장품업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인 Laurence Wittner에 따르면 NaTrue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지만 표준의 접근에 있어서는 Cosmos보다 한발 뒤쳐진다고 밝히며, NaTrue 표준에서는 유기농 재료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Cosmos가 향후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단계로 진행될 경우, 유기농 화장품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유지해온 유기농 화장품의 두 자리 수 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Organic Monitor에 따르면, 서유럽 전체 화장품시장에서 유기농 화장품은 2%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2009년 13%의 성장을 기록했다.